

서울시, 쪽방촌·전통시장에 재난위치식별도로 설치한다

“인명피해 예방위해 주거밀집공간 화재발생시 피난 우선”



서울시가 상반기 중에 쪽방촌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화재 등 재난사실을 신속·정확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상에 유색페인트로 실선 표시 한 시설이다. 출동하는 소방대도 재난위치 식별 표시를 통해 신속히 현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의 도로상에 'A번지 일대지역', 'B번지 일대' 등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표시를 해준다.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시민은 바닥에 표시된 색깔을 보고 119로 신고하면 된다.

구간별로 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색깔이 특정한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고자 뿐만 아니라 119신고를 접수하는 수보자도 신고지점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화재진압 출동대의 경우도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잘 활용하면 발화 지점을 최단시간 안에 정확히 찾아갈 수 있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상반기 중에 각 소방서별로 전통시장 1개소, 쪽방촌 1개소씩 선정해 추진된다.

시는 우선 시범운영을 한 뒤 효과를 검토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위치 식별도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3월까지 쪽방촌에는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비상벨이 설치된다.

쪽방촌은 5층 미만의 저층건물 안에 방을 쪼개서 사용하는 형태다.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한

두 평 남짓한 방에서 이동식 버너로 음식조리 등 숙식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과 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 주거형태의 공간에서 화재 시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재사실을 비상경보해 주는 안전시설이다.

현재 쪽방에는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주택용소방시설' 즉,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다수의 쪽방이 있는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곳의 쪽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시설이 필요하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촌 골목에 보행거리 40m 마다 한 대의 발신기와 경보벨이 하나의 세트 설치된다. 화재 시에는 발견한 사람이 먼저 누르기만 하면 된다. 경보벨 소리를 듣고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가 가능하다. 지난 22일 쪽방촌 중 한 곳인 저가형 임대주택(중구 후암로 60길) 건물에 비상벨이 설치됐다.

이재철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쪽방과 같이 좁은 공간에 밀집된 주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벨이 작동해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하도록 하는 것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비상벨 뿐 만 아니라 재난위치식별도로 표시도 발화지점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 황금시간 도착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스

서울 지하철역 공사 중 근로자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서울시 감사결과서 드러나...총 27건 지적

지하철 이용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석면제거 및 시설개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석면' 분진 등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제거 작업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시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지적사항과 25건의 인사조치가 서울시 산하 5개 기관(서울교통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용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내려졌다. 감사는 지난해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교통공사는 '신릉역'과 '영등포구청역'을 대상으로 지하철 역사내 승강장, 대합실에 도포된 석면 제거 및 시설개량 공사를 진행했다. '신릉역 승강장 시설개량공사'와 '영등포구청역 대합실 시설개량공사'는 각각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3일까지, 2017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석면 제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석면분진 발생 작업장 등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 작업장에 대해 30일 내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또 6개

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2017년 12월 17일 신릉역 승강장과 2017년 12월 22일 영등포구청역 대합실 석면제거 작업공종(공사)의 작업환경 측정을 감사당일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정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준설도 적지않게 '방진덮개' 및 '살수시설' 등의 비산방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기존 미반출된 준설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량 반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서울시,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최대 10회 지원

서울시는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1년간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면접 정장 비스인 '취업날개 서비스'를 1년간



한국에서 맞이하는 졸업

2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에서 열린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외국 인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면접 정장 대여 지점도 기존 '신촌·건대·왕십리' 3개소에서 '사당·강남'까지 확대해 5개소로 늘린다.

25일 시에 따르면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인 '취업날개 서비스'는 ▲구직자 맞춤 ▲넥타이, 구두 등 면접 아이템 종합 대여 ▲간편 연장·반납 방식 등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말까지 총 5만6913명의 청년구직자가 이용했다.

이용대상은 고교졸업자 예정자부터 만 34세 이하 주민등록자가 서울 인 청년과 서울소재 학교 재학생, 졸업생 등으로 서울에 거주자를 둔 청년 구직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년 최대 10회까지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에서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장 대여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한 일자에 대여업체를 방문하면 신체지수 측정 후 대여전문가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목적과 체형에 어울리는 정장을 골라 대여해준다.

대여기간은 3박 4일이다. 첫 번째 이용 시에만 치수 측정 등을 위해 방문하면 된다.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 후 택배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대여기간 내 추가 면접이 생길 경우 예약시스템을 통해 대여연장도 가능해 여러 건의 면접이 모두 끝난 후 반납하면 된다.

이울러 시는 정장 대여 지점도 기존 '신촌·건대·왕십리' 3개소에서 '사당·강남' 등까지 확대해 5개소로 늘린다.

인천 택시요금 3월9일부터 3000→3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6500원

인천지역 택시의 기본요금이 3월9일부터 3800원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공정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3월9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는 3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6500원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

다. 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17.31% 인상했다.

요금은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 미터에 800원이 추가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건표를 참고해야 한다.

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월 체결한 택시 노·사 상생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 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택시 서비스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쌍성스마일택시'를 향후 2년간 지속 시행해 법인 및 개인 택시에게 인센티브 및 패널리티를 부여하여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불편신고를 감축할 예정이다.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